

일개 지역 청소년의 중독행동 관련 요인*

박 현 숙** · 정 선 영***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는 각종 중독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중독의 문제는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불건강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독은 특정한 기호, 습관 또는 행동에 스스로 빠지거나 자신을 내맡기는 상태를 의미하며, 기분을 변화시키기 위해 특정 물질에 의존하는 물질 중독과 특정한 활동이나 사건에 의존하는 행동 중독으로 구분할 수 있다(Choi, Jeon, & Jeong, 2013). 특히 신체적·심리적으로 중독에 취약한 청소년(Chamber & Potenza, 2003; Sharon, 2006)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Coombs, 2004),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중독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중독행동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청소년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니코틴과 알코올 중독을

포함한 물질 중독행동과 게임, 쇼핑, 휴대폰, 텔레비전, 도박 및 인터넷 중독을 포함한 행동 중독행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Park & Jung, 2012). 과거의 청소년들은 물질 중독행동에 많이 노출되었지만(Choi et al., 2013), 최근 들어 스마트 기기의 보편적인 보급으로 인해 각종 행동중독이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중독행동이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며(Cheon, 2013; Choi et al., 2013), 한 가지의 중독에 노출되면 쉽게 다른 유형의 중독으로 이완이 될 수 있다(Hagedorn, 2009). 또한 각종 중독행동이 유사한 심리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중독행동을 하기 전, 중, 후에 느끼는 감정의 일련 변화와 성격적 요인이 서로 일관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청소년의 중독행동 예방을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휴대폰과 같은 특정 중독에 초점을 둔 접근보다 중독행동 간의 유사한 심리구조와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보다 비용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Kim, 2007). 지금까지 청소년의 중독행동 예방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의 시도로 하나의 중독행동에 국한해서 보지 않고, 청소년의 중독성 관련 요인(Park, 2012), 청소년 중독행동의 다차원적 척도 개

* 본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RF-2011-0014636).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과학연구소 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과학연구소 조교수(교신저자 E-mail: jungsy@cu.ac.kr)

투고일: 2013년 10월 21일 심사회의일: 2013년 10월 28일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26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Jung, Sun Young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With Duryu Park, 17 road 33, Nam-gu, Daegu, Korea, 705-718

Tel: 82-53-650-4977 Fax: 82-53-650-4392 E-mail: jungsy@cu.ac.kr

발(Park & Jung, 2012)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통합적 접근의 경험적 근거와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도박, 게임 등의 각각의 중독행동의 관련 요인 파악이 아닌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중독행동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대한 관련요인을 파악한다면 보다 비용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청소년의 중독행동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문제행동 전반을 다룰 때의 주요 접근 방법 중 하나인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체계의 요인을 파악하는 다체계적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Haugaard, 2001). 이러한 부분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각각의 중독행동에 대한 관련요인 규명은 제시된 바 있으나 중독행동 전체를 고려하였을 때 어떠한 요인이 주요 관련요인으로 고려되었는지는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Park, 2012). 따라서 중독행동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위한 주요 다체계적인 관련요인 파악이 필요하다. 먼저 청소년의 중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중독행동과 관련된 연구에서 각각의 중독행동에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개인요인을 살펴보면 자기통제(Molde, Pallen, Bartone, Hystad, & Johnsen, 2009; Park, 2012; Park & Jung, 2012)와 자기효능감(Coombs, 200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가치 중심의 보호요인에 기반을 둔 접근은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중독위험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미래 성취의 차이를 예측하는 데에는 다소 현실적이지 못하며, 중재적인 차원으로 볼 때 원론적인 접근만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Choi et al., 2013) 최근에는 청소년에게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예방 방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관리기술이 고려되고 있다(Choi et al., 2013; Jeong & Jang, 2009; Trueman & Hartley, 1996). 또한 중독행동 관련 개인요인 중 공통적으로 도출된 일반적 특성으로는 학교, 학년, 성별, 종교유무, 성적, 용돈, 흡연 경험, 음주 경험, 유해약물 사용 경험, 성행동 경험, 도박 경험, 폭력 경험, 자살생각 경험, 가출 경험, 일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 등(Chamber & Potenza, 2003; Molde et al., 2009; Park, 2012; Park & Jung, 2011; Sharon, 2006)이 고려될 수 있다.

청소년 중독행동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관련요인 파악 중 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족요인을 살펴보면 모든 청소년 각각의 중독행동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Molde et al., 2009; Sharon, 2006)과 부모감독(Park & Jung, 2011)의 요소를 함께 포함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주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이고 긍정적인수록 청소년의 개인요인인 우울, 불안, 자기통제에 영향을 주어 이탈행동과 중독행동으로의 이환을 예방할 수 있다(Lee, Doh, Kim, & Park, 2009; Sharon, 2006). 또한 중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 중 일반적 특성의 경우, 가정 경제수준, 부모 이혼 유무, 동거 부모, 부모 알코올 중독 문제 유무, 부모 학대 경험 유무가 공통적인 가족요인(Chamber & Potenza, 2003; Lee et al., 2009; Molde et al., 2009; Park, 2012; Park & Jung, 2011; Sharon, 2006)이 고려될 수 있다.

청소년 중독행동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관련요인 파악에서 고려할 수 있는 마지막 요인인 지역사회요인은 중독행동에 따라 다소 일관성의 차이는 있으나 지역사회의 청소년 지지체계 중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긍정적인 교사 및 또래관계(Kim, 2009; Kwon, Baek, Kim, & Kim, 2009)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주변사람으로부터의 성학대 경험 유무, 위험행동을 하는 친구 유무, 집이나 학교 근처에 술집, PC방, 오락실 및 뽑기 기계가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중독행동 접근성의 문제 등이 중독행동 관련 요인이었다(Molde et al., 2009; Park, 2012; Park & Jung, 2011; Sharon, 2006).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의 통합적 중독행동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통적 속성을 가진 중독행동 모두를 고려한 관련요인에 대해 탐색하는 것은 청소년 중독행동을 관리하는 비용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요인뿐만 아니라 가족요인과 지역사회요인을 함께 다루는 것이 필요하고, 이들 요인들은 개인요인을 긍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줄 뿐만 아니라, 보다 다차원적인 중독행동 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청소년의 중독행동과 관련된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청소년 중

독행동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중독행동과 관련된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요인에 따른 비중독행동군과 위험중독행동군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청소년의 중독행동 관련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요인을 규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중독행동 관련 요인을 규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집단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통합적 중독행동에 대한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1개 광역도시와 2개의 지역도시에 소재한 7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생 398명을 임의표집 하였다. 또한 학교와 학년에 따라 각각의 중독행동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근거(Cheon, 2013; Park & Jung, 2011; Molde et al., 2009)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중독행동의 관련 요인으로서 이들의 유의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중학교 3곳, 인문계 고등학교 2곳, 실업계 고등학교 2곳에서 모두에서 학급 단위로 대상자를 표집하였다. 대상자 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한 G*power 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표본 수 추정에는 문헌고찰을 통해 준거변인에 대한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 중 유의했던 변수 중 가장 낮은 오즈비(Odd Ratio, OR) 값을 보인 것의 오즈비와 보편적인 검정력과 유의수준의 값을 기준

으로 연구 중 산출해야 한다는 근거(Menard, 2001)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와 일치된 집단에서 본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 중 선행연구에서 가장 낮은 오즈비를 보인 부모 이혼 유무(Molde et al., 2009)의 오즈비(OR) 0.70, 유의수준 .05, 검정력 .80으로 했을 때 적절한 피험자 수는 최소 372명이었다. 이를 근거로 설문지의 응답률과 탈락률을 고려하여 대상자 수는 총 400명을 최종 목표 인원으로 하였다. 대상자 400명을 접촉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나,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것을 제외한 398명(99.5%)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에 앞서 청소년의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성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중학생 2인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예비조사 결과, “설문 문항의 문장이나 단어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설문 내용에 답하기 어렵지는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수정사항, 추가설명 및 건의사항에 대한 개방적인 질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자료 수집과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를 위해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 학급담당 등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수행에 대한 허락과 협조를 구하였다.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자료 수집 이전에 연구 설명문을 배부하면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청소년 개인과 학부모의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익명과 비밀 보장을 약속하였고, 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공지하였으며, 연구 결과가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생활용품을 답례로 제공하였다.

자료 수집 중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이었으며, 자료 수집 기간은 2013년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였다.

3. 연구 도구

1) 중독행동 관련 개인요인

• 시간관리기술

시간관리기술은 Hong (2004)의 시간관리 척도 15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개발 당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 대상자에게 적절하며, 매일의 일과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목록을 작성하는지는 측정하는 '계획성', 시간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관리 유지성', 일의 순서를 정하여 그 순서대로 하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순서성'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 1점에서 최고 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시간관리를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Hong (2004)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alpha = .7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2$ 였다.

• 개인요인 관련 일반적 특성

중독행동 관련 개인 요인 중 일반적 특성으로, 학교, 학년, 성별, 종교유무, 성적, 용돈, 흡연 경험, 음주 경험, 유해약물 사용 경험, 성행동 경험, 도박 경험, 폭력 경험, 자살생각 경험, 가출 경험, 일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 등을 파악하였다.

2) 중독행동 관련 가족요인

• 부모양육태도

지각된 부모양육태도는 Jo (2011)의 단축형 부모양육태도 척도 2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개발 당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 대상자에게 적절하며, 애정, 거부,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3가지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 1점에서 최고 4점의 4점 Likert 척도이며, 3가지 하위요인인 애정, 거부, 과보호적 양육태도 각각의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항목에 대한 양육태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Jo (2011)의 연구에서 애정적, 거부적,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하부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alpha = .88, .75, .72$ 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0, .81, .88$ 이었다.

• 가족요인 관련 일반적 특성

중독행동 관련 가족요인 중 가정 경제수준, 부모 이혼 유무, 동거 부모, 부모 알코올 중독 문제 유무, 부모 학대 경험 유무를 파악하였다.

3) 도박행동 관련 지역사회 관련 요인

• 교사 및 또래관계

교사 및 또래관계는 Kim (1995)의 사회 지지 지각 척도 중 교사지지 7문항과 또래지지 8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개발 당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 대상자에게 적절하며,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 및 또래의 지지 정도가 높고, 교사관계와 또래관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교사관계와 또래관계 각각 Cronbach's $\alpha = .99, .9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2, .98$ 이었다.

• 지역사회 관련 일반적 특성

중독행동 관련 지역사회요인 중 주변사람으로부터의 성학대 경험 유무, 위험행동을 하는 친구의 수, 집이나 학교 근처의 술집, PC방, 오락실 및 뽑기 기계 유무를 파악하였다.

4) 중독행동

중독행동은 Park과 Jung (2012)이 개발한 청소년 중독행동의 다차원적 척도 7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개발 당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 대상자에게 적절하며, 게임, 쇼핑, 휴대폰, 니코틴, 텔레비전, 도박, 인터넷, 알코올 중독행동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Park과 Jung (2012)의 청소년 중독행동 도구에 의하면 중독군은 중독행동군에 최대 350점 만점 중 상위 2.5% 수준의 상태인 표준점수 70점의 평균인 200.2점을 기준으로 한 중독행동군과 상위 10%에 해당되는 표준점수 63점의 평균인 162.2점을 기준으로 한 중독행동 위험군을 위험중독행동군으로 구분하였고, 이상의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인 평균 162.2 미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군으로 구분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중독행동군과 중독행동 위험군을 위험중독행동군으로, 일반군을 비중독행동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 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8$ 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를 부호화 작업을 거쳐 IBM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으며,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요인에 따른 위험중독행동군과 비중독행동군의 차이는 χ^2 -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중독행동 관련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제 요인을 설명변수로 하고, 위험중독행동군을 반응변수로 하여 이변량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요인별 오즈비(OR)와 이의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95% CI)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중독행동 집단군 간에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요인을 설명변수로 하고, 위험중독행동군을 반응변수로 하여 조건부 단계별 방법(conditional stepwise method)을 이용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요인별 오즈비(OR)와 이의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는 중학생이 195명(29.0%), 인문계 고등학생이 119명(29.9%), 실업계 고등학생이 84명(21.1%)이었고, 중학교 1학년이 64명(16.1%), 중학교 2학년이 63명(15.8%), 중학교 3학년이 68명(17.1%), 고등학교 1학년이 62명(15.6%), 고등학교 2학년이 71명(17.8%), 고등학교 3학년이 70명(17.6%)이었다. 성별은 남학생이 212명(53.3%), 여학생이 186명(46.7%)이었고, 종교가 있는 학생이 133명(33.4%), 종교가 없는 학생이 265명(66.6%)이었다. 성적은 상위 1/3인 학생이 127명(31.9%), 중위인 학생이 137명(34.4%), 하위 1/3인 학생이 134명(33.7%)이었다. 중독행동의 기준에 따른 비중독행동군이 247명(62.1%)이었고, 위험중독행동군이 151명(37.9%)이었다.

2. 대상자의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요인에 따른 비중독행동군과 위험중독행동군의 차이

대상자의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요인에 따른 비중독행동군과 위험중독행동군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개인요인에 따른 위험중독행동군의 비율과 통계적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학생은 33.3%, 인문계 고등학생은 39.5%, 실업계 고등학생은 46.4%로 학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chi^2=16.25$, $p<.001$), 중학교 1학년은 32.8%, 중학교 2학년 36.5%, 중학교 3학년 33.8%, 고등학교 1학년 48.4%, 고등학교 2학년 45.1%, 고등학교 3학년 24.3%로 학년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5.58$, $p<.001$). 남학생은 50.0%, 여학생은 20.4%로 성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chi^2=2.84$, $p<.001$), 종교가 있는 학생은 32.3%, 종교가 없는 학생은 40.8%로 종교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chi^2=22.51$, $p<.001$), 성적 상위 1/3은 24.4%, 중위는 38.7%, 하위 1/3은 50.5%로 성적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21.89$, $p<.001$).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은 56.6%, 흡연 경험이 없는 학생은 37.1%로 흡연 경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chi^2=15.29$, $p<.001$),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은 51.1%, 음주 경험이 없는 학생은 33.6%로 음주 경험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32.64$, $p<.001$). 성행동 경험이 있는 학생은 44.8%, 성행동 경험이 없는 학생은 37.4%로 성행동 경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chi^2=21.50$, $p<.001$), 도박 경험이 있는 학생은 43.9%, 도박 경험이 없는 학생은 34.0%였다.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학생은 57.8%, 자살생각 경험이 없는 학생은 27.1%로 자살생각 경험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chi^2=20.11$, $p<.001$), 가출 경험이 있는 학생은 50.0%, 가출 경험이 없는 학생은 37.0%로 가출 경험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8.61$, $p<.001$). 일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위험중독행동군은 평균 180.51 ± 55 분, 비중독행동군은 평균 110.41 ± 15.00 분으로 두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t=31.55$, $p<.001$), 시간관리기술은 위험중독행동군이 평균 22.6 ± 4.31 점,

Table 1. The Differences of Addictive Behavior of Subjects by Personal, Family, and Community Factors N=398

Variables	Categories	Non-addictive (n=247)		Risk for addictive (n=151)		Total (n=398)		χ ² or t	p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Personal factors									
School type	Middle school	130 (66.7)	65 (33.3)	195 (49.0)	16.25	<.001			
	Academic high school	72 (60.5)	47 (39.5)	119 (29.9)					
	Vocational high school	45 (53.6)	39 (46.4)	84 (21.1)					
Grade	1 st grade in the middle school	43 (67.2)	21 (32.8)	64 (16.1)	15.58	<.001			
	2 nd grade in the middle school	40 (63.5)	23 (36.5)	63 (15.8)					
	3 rd grade in the middle school	45 (66.2)	23 (33.8)	68 (17.1)					
	1 st grade in the high school	32 (51.6)	30 (48.4)	62 (15.6)					
	2 nd grade in the high school	39 (54.9)	32 (45.1)	71 (17.8)					
	3 rd grade in the high school	53 (75.7)	22 (24.3)	70 (17.6)					
Gender	Male	118 (50.0)	118 (50.0)	212 (53.3)	2.84	<.001			
	Female	129 (79.6)	33 (20.4)	186 (46.7)					
Religion	Yes	90 (67.7)	43 (32.3)	133 (33.4)	22.51	<.001			
	No	157 (59.2)	108 (40.8)	265 (66.6)					
Academic performance	High	96 (75.6)	31 (24.4)	127 (31.9)	21.89	<.001			
	Middle	84 (61.3)	53 (38.7)	137 (34.4)					
	Low	67 (50.5)	67 (50.5)	134 (33.7)					
Pocket money (10,000won per month)	Mean (SD)	10.54±8.32	10.55±5.27	10.54±8.91	0.15	.941			
Smoking experience	No	207 (62.9)	122 (37.1)	329 (82.7)	15.29	<.001			
	Yes	30 (43.5)	39 (56.5)	69 (17.3)					
Alcohol consumption	No	200 (66.4)	101 (33.6)	301 (75.6)	32.64	<.001			
	Yes	47 (48.5)	50 (51.1)	97 (24.4)					
Drug use experience	No	247 (62.2)	150 (37.8)	397 (99.7)	-	.888*			
	Yes	0 (0.0)	1 (100.0)	1 (0.3)					
Sexual experience	No	231 (62.6)	138 (37.4)	369 (92.7)	21.50	<.001			
	Yes	16 (55.2)	13 (44.8)	29 (7.3)					
Experience of gambling	No	159 (66.0)	82 (34.0)	241 (60.6)	15.17	<.001			
	Yes	88 (56.1)	69 (43.9)	157 (39.4)					
Experience of violence	No	246 (62.3)	149 (37.7)	395 (99.2)	-	.859*			
	Yes	1 (33.3)	2 (66.7)	3 (0.8)					
Suicidal ideation	No	188 (72.9)	70 (27.1)	258 (64.8)	20.11	<.001			
	Yes	59 (42.1)	81 (57.8)	140 (35.2)					

Table 1. The Differences of Addictive Behavior of Subjects by Personal, Family, and Community Factors (Continued) N=398

Variables	Categories	Non-addictive (n=247)		Risk for addictive (n=151)		Total (n=398)		χ ² or t	p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Experience of being a runaway	No	233 (63.0)	137 (37.0)	370 (93.3)	18.61	18.61	(<.001	(<.001	
	Yes	14 (50.0)	14 (50.0)	28 (0.7)					
Time of smart phone use per 1 day (minute)	Mean (SD)	110.47±15.00	180.51±21.54	137.04±22.00	31.55			<.001	
Time management skill	Mean (SD)	38.21±11.00	22.6±4.34	32.3±15.11	15.38			<.001	
Family factors									
Economic status	High	72 (63.7)	41 (36.3)	113 (28.4)	1.25	1.25	.564	.564	
	Middle	93 (63.6)	53 (36.4)	146 (36.7)					
	Low	82 (59.0)	57 (41.0)	139 (34.9)					
Parent divorce	No	201 (61.3)	127 (38.7)	328 (82.4)	0.98	0.98	.848	.848	
	Yes	46 (65.7)	24 (34.3)	70 (17.6)					
Parental alcohol abuse	No	205 (67.7)	98 (32.3)	303 (76.1)	16.20	16.20	(<.001	(<.001	
	Yes	42 (44.2)	53 (55.8)	95 (23.9)					
Experience physical abuse by parents	No	168 (70.0)	72 (30.0)	240 (60.3)	7.35	7.35	(<.001	(<.001	
	Yes	79 (50.0)	79 (50.0)	158 (39.7)					
The emotional warmth type of parental rearing attitudes	Mean (SD)	26.51±6.29	15.58±5.57	22.36±7.17	8.15			<.001	
The rejection type of parental rearing attitudes	Mean (SD)	14.11±5.57	21.10±6.12	16.76±7.11	4.21			<.001	
The overprotection type of parental rearing attitudes	Mean (SD)	14.12±4.01	20.21±3.98	16.49±4.51	3.87			<.001	
Community factors									
Experience of sex violences	No	244 (64.6)	134 (35.4)	378 (95.0)	40.57	40.57	(<.001	(<.001	
	Yes	3 (15.0)	17 (85.0)	20 (5.0)					
Number of peer who have risk behavior	Mean (SD)	2.11±0.88	12.54±1.58	6.07±1.61	12.55			<.001	
Place accessible room of competer bar of alcohol machine of gambling	No	66 (62.9)	39 (37.1)	105 (26.4)	1.03	1.03	.915	.915	
	Yes	181 (61.8)	112 (38.2)	293 (73.6)					
Relationship with teacher	Mean (SD)	27.56±11.21	25.15±11.20	26.65±11.95	1.91			.066	
Relationship with peer	Mean (SD)	36.15±15.20	24.55±9.09	31.75±11.00	11.10			<.001	

*Fisher's exact test.

비중독행동군 38.21±11.00점 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6.97, p<.001$). 그러나 청소년의 개인요인 중 용돈, 유해약물 사용 경험 및 폭력 경험에 따라서는 위험중독행동군과 비중독행동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가족요인에 따른 위험중독행동군의 비율과 통계적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알코올문제가 있는 학생은 55.8%, 부모의 알코올문제가 없는 학생은 32.3%로 부모의 알코올문제 유무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chi^2=16.20, p<.001$),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 경험이 있는 학생은 50.0%, 경험이 없는 학생이 30.0%로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학대 경험여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7.35, p<.001$).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태도는 위험중독행동군의 평균 15.58±5.57점, 비중독행동군의 경우 평균 26.51±6.29점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태도 점수는 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t=8.15, p<.001$), 거부적 양육태도는 위험중독행동군이 평균 21.10±6.12점, 비중독행동군이 평균 14.11±5.57점으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 점수도 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4.21, p<.001$),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위험중독행동군이 평균 20.21±3.98점, 비중독행동군이 평균 14.12±4.01점으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점수 역시 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87, p<.001$). 그러나 청소년의 가족 요인 중 가정 경제 상태와 부모의 이혼 여부에 따른 위험중독행동군과 비중독행동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지역사회요인에 따른 위험중독행동군의 비율과 통계적 차이를 살펴보면, 주위 사람에 의한 성폭력 경험이 있는 학생이 85.0%, 경험이 없는 학생이 35.4%로 주위 사람에 의한 성폭력 경험 여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chi^2=40.57, p<.001$), 위험행동을 하는 친구의 수는 위험중독행동군이 평균 12.54±1.58명, 비중독행동군이 평균 2.11±0.88명으로 위험행동을 하는 친구의 수도 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2.55, p<.001$). 또래관계 점수는 위험중독행동군이 평균 24.55±9.09점, 비중독행동군이 평균 36.15±15.20점으로 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1.10,$

$p<.001$). 그러나 PC방, 술집, 뽑기 및 도박장 등의 근접성 여부와 교사와의 관계에 따른 위험중독행동군과 비중독행동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청소년의 중독행동 관련 개인, 가족 및 지역 사회 요인

청소년의 중독행동 관련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의 중독행동을 반응변수로 하고,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제 요인을 설명변수로 하여 이변량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개인요인으로는 실업계 고등학생이 중학생 보다 (OR=6.41), 고등학교 1학년이 중학교 1학년 보다 (OR=1.21), 고등학교 2학년이 중학교 1학년 보다 (OR=1.23), 종교가 없는 군이 있는 군보다 (OR=1.11), 성적이 '하'인 군이 '상'인 군보다 (OR=1.09), 흡연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OR=2.01), 음주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OR=3.56), 성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OR=4.15), 도박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OR=2.15),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OR=4.91), 가출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OR=3.69), 일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높을수록 (OR=6.29) 중독행동 위험도가 높았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OR=0.99), 시간관리기술이 높을수록 (OR=0.91) 중독행동 위험도가 낮았다.

가족요인으로는 부모 알코올문제가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OR=1.31), 부모의 신체적 학대 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OR=1.18),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OR=3.03),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OR=6.15) 중독행동 위험도가 높았으며,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OR=0.96) 중독행동 위험도가 낮았다.

지역사회요인으로는 주위 사람으로부터의 성폭력 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OR=1.05), 위험행동을 하는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OR=5.51) 중독행동 위험도가 높았고, 또래관계가 긍정적일수록(OR=0.78) 중독행동 위험도가 낮았다.

다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Table 2. Personal, Family, and Community Factors Associated with Addictive Behavior for Subjects Using Simple Logistic Regression N=398

Variables	Categories	OR	95% CI	p
Personal factors				
School type	Middle school	1		
	Academic high school	1.21	0.58- 3.91	.135
	Vocational high school	6.41	3.17-10.08	<.001
Grade	1 st grade in the middle school	1		
	2 nd grade in the middle school	1.01	1.00-1.46	.051
	3 rd grade in the middle school	1.01	1.00-1.50	.053
	1 st grade in the high school	1.21	1.15-1.52	<.001
	2 nd grade in the high school	1.23	1.11-1.94	<.001
	3 rd grade in the high school	1.01	0.94-1.34	.057
Gender	Male	1		
	Female	0.99	0.88-0.99	.034
Religion	Have	1		
	Have not	1.11	1.02-1.34	<.001
Academic performance	High	1		
	Middle	1.03	1.00-1.16	.069
	Low	1.09	1.02-1.28	<.001
Smoking experience	No	1		
	Yes	2.01	1.95-2.17	<.001
Alcohol consumption	No	1		
	Yes	3.56	2.60-7.15	<.001
Sexual experience	No	1		
	Yes	4.15	2.54-7.54	<.001
Experience of gambling	No	1		
	Yes	2.15	1.15-5.15	<.001
Suicidal ideation	No	1		
	Yes	4.91	1.58-7.91	<.001
Experience of being a runaway	No	1		
	Yes	3.69	2.53-6.78	<.001
Time of smart phone use per 1 day (minute)		6.29	3.58-7.01	<.001
Time management skill		0.91	2.55-5.11	<.001
Family factors				
Parental alcohol abuse	No	1		
	Yes	1.31	1.10-4.50	<.001
Experience physical abuse by parents	No	1		
	Yes	1.18	1.00-4.61	<.001
The emotional warmth type of parental rearing attitudes		0.96	0.88-1.28	<.001
The rejection type of parental rearing attitudes		3.03	1.76-5.20	<.001
The overprotection type of parental rearing attitudes		6.15	3.19-8.89	<.001
Community factors				
Experience of sex violences	No	1		
	Yes	1.05	1.01-1.45	<.001
Number of peer who have risk behavior		5.51	3.15-9.12	<.001
Relationship with teacher		0.63	0.55-1.05	.099
Relationship with peer		0.78	0.54-0.89	<.001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Table 3. Factors Associated with Addictive Behavior for Subjects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N=398

Variables	Categories	OR	95% CI	p
Alcohol consumption	No	1		
	Yes	1.35	1.06-1.73	.001
Sexual experience	No	1		
	Yes	1.30	1.01-1.78	.004
Suicidal ideation	No	1		
	Yes	1.38	1.21-2.50	<.001
Experience of being a runaway	No	1		
	Yes	1.57	1.41-1.79	<.001
Time of smart phone use per 1 day (minute)		2.80	2.15-3.77	<.001
Time management skill		0.90	0.59-0.97	.001
Parental alcohol abuse	No	1		
	Yes	1.34	1.01-1.70	<.001
Experience physical abuse by parents	No	1		
	Yes	1.05	1.02-1.08	<.001
The emotional warmth type of parental rearing attitudes		0.95	0.89-0.97	<.001
The rejection type of parental rearing attitudes		1.66	1.33-2.08	<.001
The overprotection type of parental rearing attitudes		2.26	1.14-4.00	<.001
Number of peer who have risk behavior		2.08	1.01-5.10	<.001
Relationship with peer		0.72	0.67-0.78	<.001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회 제 요인을 설명변수로 포함시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회귀분석 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한 결과, Homer-Lemeshow 검정에서 예측값과 관찰값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chi^2=5.11, p=.916$)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음주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1.35배, 성행동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1.30배,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1.38배, 가출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57배, 일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높을수록 2.80, 부모의 알코올 문제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34배, 부모로부터의 신체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05배,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1.66배,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2.26배, 위험행동을 하는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2.08배 중독행동이 발생할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시간관리기술이 높을수록 0.90배,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0.95배, 또래 관계가 긍정

적으로 높을수록 0.72배 중독행동이 발생할 위험도가 낮게 나타났다(Table 3).

IV.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중독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청소년의 통합적 중독행동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를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요인을 고려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중독행동 관련 개인요인은 음주 경험, 성행동 경험, 자살생각 경험, 가출 경험, 일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이었다. 이는 음주 경험, 성행동 경험, 자살생각 경험,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위험중독행동을 할 위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먼저 음주 경험, 성행동 경험, 자살생각 경험, 일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개개의 중독행동 관련 요인이라는 것은 이들을 통합적으로 함께 본 연

구가 없으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이들 요인들이 청소년의 주요 중독행동으로 분류된 중독행동인 도박중독(Kim, 2009; Kwon et al., 2009; Molde et al., 2009; Park & Jung, 2011), 알코올 중독과 인터넷 중독(Jo, 2011; Lee et al., 2009), 성중독(Hagedorn, 2009)의 위험요인이라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이는 중독행동 모두는 공통적 특성과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사한 요인에 기인된다는 점(Coombs, 2004; Sharon, 2006)을 증명하는 결과이며, 이에 따라 통합적으로 중독행동이 관리했을 때 보다 비용효과적일 수 있다는 통합적 중독행동 관리에 대한 본 연구의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라 생각된다.

또한 일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인터넷 사용시간이 고등학생 인터넷 중독에 예측요인이라는 Oh (2005)의 견해와 일맥상통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 컴퓨터에 비해 더욱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접근성이 높아 모든 중독행동으로의 이환이 가능하게 하여, 인터넷 사용시간에 비해 더 의미 있는 관련 변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Cheon, 2013)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June, Sohn, So, Yi와 Park (2007)이 인터넷 중독, 흡연 및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연구에서 이상의 세 가지 중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이 각각 다른 결과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와 같이 통합적 접근의 중독행동 관련 요인에 대한 파악뿐만 아니라, 개개의 중독행동 관련 요인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통합적 접근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학교,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중독행동의 단변량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중독행동을 예측하는 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은 선행연구(Cheon, 2013; Molde et al., 2009)에서 학교, 학년 및 성별이 스마트폰 중독, 도박 중독에서 유의한 관련 요인이라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이들 요인이 다른 요인에 비해 중독행동을 예측하는 설명력의 한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학교, 학년 및 성별보다는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중독행동이 통제될 수 있음이 확인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본 연구가 임의표집 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였기 때

문에 나타난 결과인지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중독행동을 통합적으로 다루어진 것에 기인한 것인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겠다.

또한 시간관리기술이 중독행동 관련 개인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관리기술이 높을수록 위험도가 낮아짐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시간관리기술과 유사한 의미로 볼 수 있는 시간 할인율을 다룬 선행연구들(Choi et al., 2013; Kim, Choi, & Yoo, 2010)과 비교하여 고찰할 수 있다. 시간 할인율은 개인이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시간을 쓰기보다는 그 반대로 충동적이고 현재지향적인 속성을 가지고 시간을 소모하는 비효율적인 시간활용을 의미하며, 이러한 시간 할인율이 높은 청소년에게서 인터넷 중독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 중독의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는 선행연구결과(Choi et al., 2013; Kim et al., 2010)와 일관된다. 따라서 현재 상황보다 미래에 더 가치를 두고 장래희망을 계획하는 청소년들이 시간관리를 잘 하므로(Isen, 2008), 현재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장래를 위한 계획을 고려한 시간관리기술 증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의 중독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전략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중독행동 관련 가족요인으로 부모 알코올 중독 문제 유무, 부모 학대 경험 유무, 부모양육태도의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및 과보호적 태도가 유의하였다. 이는 부모 알코올 문제가 있는 군과 부모 학대 경험이 있는 군이 위험중독행동을 할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알코올 중독문제가 청소년의 비행행동과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Hagedorn, 2009; Jo, 2011; June et al., 2007; Kim, 2009; Kim, et al, 2010; Molde et al., 2009; Park & Jung, 2011; Park, Kim, Lee, Kim, 2009; Sharon, 2006)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가족의 경제상태가 청소년의 음주, 흡연, 및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June et al., 2007; Kim, 2009)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이들 선행연구(June et al., 2007; Kim, 2009)가 각각의 중독행동을 다루었고, 특히 이들 중독행동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중독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지속적인 금전소모성

중독행동임(June et al., 2007; Kim, 2009; Sharon, 2006)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지속적인 금전소모가 요구되지 않는 텔레비전, 인터넷 중독행동이 포함된 결과이므로 가정의 경제상태가 주요 관련 요인으로 도출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의한 중독행동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인터넷 이용 동기 및 중독에 영향을 미쳤다는 Jo (2011)의 견해와 가족의 건강성이 고등학생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Jang & Choi, 2012)와도 일관된다. 특히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각종 문제행동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예측변인이었으며, 거부적이고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오히려 자녀들의 행동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Coombs, 2004)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교육과 효과성 연구에 대한 추후 확장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청소년 중독행동 관련 가족요인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요인 뿐만 아니라 부모의 역할 자체가 자녀의 중독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중독행동과 학대 행위 자체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과 사회에 전반에의 확대 인식일 필요하며, 청소년 중심의 중독행동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가족 구성원, 특히 부모의 효과적인 양육을 위한 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중독행동 관련 지역사회 요인으로 위험행동을 하는 또래의 수와 또래관계가 중독행동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이는 위험행동을 하는 친구 수가 많을수록 위험중독행동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친구의 위험행동이 청소년의 각종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며(Coombs, 2004; Kim, 2009; Sharon, 2006), 중독행동을 하는 친구가 중독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각종 중독행동의 위험요인이 된다는 연구결과(Hagedorn, 2009; June et al., 2007; Kim, 2009; Molde et al., 2009; Park & Jung, 2011)와 일관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친구와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높을수록 위험중독행동을 할 위험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초등 고학년에서 인터넷 중독의 보

호요인으로 또래지지로 도출되었던 선행연구 결과(Lee & Yoo, 2012)와 일관된다. 이는 청소년의 특성상 또래 동조성이 높고, 친구를 가장 의미 있는 타인으로 여기므로(Coombs, 2004), 또래관계가 긍정적이고 높을수록 위험중독행동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또래와 학교집단은 청소년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생태학적 맥락(Haugaard, 2001)으로서, 이 집단 내에서의 또래관계는 청소년 이후의 사회성, 성격 발달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가 된다는 견해(Freemam & Brown, 2001)와 일관된다. 특히 청소년기는 또래집단과의 관계가 깊어갈수록 또래들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또래의 행동을 모방하게 되므로, 어느 또래 집단과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비행과 중독에 가담하는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Kim, 2009; Rankin & Quane, 2002). 청소년 집단의 특성 상 모방과 또래집단에서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접촉하는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중독행동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청소년 개개인을 중심으로 한 중재프로그램보다 또래집단을 함께 중재할 수 있는 학교중심의 중독예방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교사관계가 위험중독행동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는데, 이는 긍정적인 교사관계가 청소년 행동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 결과(Kim, 1995; Kwon et al., 2009)와는 다른 결과라 할 수 있으나, 이전의 청소년 연구에서 다른 의미 있는 타인이 될 수 있는 교사에 대한 요인은 일관성이 없었던 결과를 고려할 때 추후 이에 대한 면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중독행동의 접근성과 환경은 청소년의 중독행동에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반복연구 역시 필요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 통합적 중독행동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청소년 개인의 위험행동 노출을 줄이기 위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시간관리기술에 대한 동기부여 및 구체적 방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이와 동시에 가족 구성원 전체의 협조와 행동 개선을 위해서 부모의 교육프로그램 구성과 적용이 필요하며, 이 프로그램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파악과 양육태도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 중재를 통해

애정적 부모양육태도를 강화해야 하겠다. 또한 비용효과적인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또래 동조성을 고려하여 또래집단과 함께 참여할 때 그 효과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학교중심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또래관계 개선과 중독행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요인을 고려한 통합적인 중독 예방 정신건강간호 전략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통합적 중독행동의 관련 변인을 파악하였으므로, 통합적 중독행동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의 기초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성과 의의를 들 수 있겠다. 이는 개개의 중독행동을 중심으로 관리 및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이 되었을 때 반복적인 프로그램에 노출되어 대상자로 하여금 식상함을 느낄 수 있고, 비용효과적이지 않다는 점(Sharon, 2006)을 고려할 때에 통합적 중독행동 관련 변인 파악은 통합적 중독행동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의표집을 하였으므로 청소년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한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청소년의 중독행동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구조모형 연구를 통해 중독행동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통합적 중독예방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중독행동과 이에 영향을 주는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요인을 조사하고, 중독행동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청소년의 중독행동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의 결과 청소년의 92.0%가 중독행동을 한 번 씩은 모두 경험하였고, 중독으로 갈 위험이 높아 집중적인 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한 위험중독행동군이 38.0%였다. 또한 대상자의 개인요인인 시간관리기술, 음주 경험, 성행동 경험, 자살생각 경험 가솔 경험, 일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 가족요인인 부모양육태도의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및 과보호적 태도, 부모 알코올 중독 문제 유무, 부모 학대 경험 유무, 지역사회 요인인 위험행동을 하는 또래의 수와 또래 관계가 중독행동의 유의한 관련 변인으로 나타났다. 성인으로 이행되는 시기의 청소년기의 경우 하나의 중독 문제에 노출되면 반복 이환이 될 확률이 높아짐을 감안할 때 청소년 중독행동 관련 변인을 고려한 지역사회 기반 학교중심의 통합적 중독예방 교육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요인 모두를 고려한 청소년 중독예방 정신건강간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Chamber, R. A., & Potenza, M. N. (2003). Neurodevelopment, impulsivity and adolescent gambling.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9(1), 53-84. <http://dx.doi.org/10.1023/A:1021275130071>
- Cheon, Y. B. (2013). Smart phone addiction and prevent problem in teenagers. *e-Business Review*, 14(1), 125-139.
- Choi, M. S., Jeon, E. J., & Jeong, W. J. (2013). Time preference and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20(1), 109-139.
- Coombs, R. H. (2004). *Handbook of addictive disorders: A practical guide to diagnosis & treatment*.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Freemam, H., & Brown, B. B. (2001). Primary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Differences by attachment sty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6), 653-674. <http://dx.doi.org/10.1023/A:1012200511045>
- Hagedorn, W. B. (2009). Sexual addiction counseling competencies: Empirically-based tools for preparing clinicians to recognize, assess, and treat sexual addiction. *Sexual*

- addiction & Compulsivity*, 16(3), 190-209. <http://dx.doi.org/10.1080/10720160903202604>
- Haugaard, J. J. (2001). *Problematic behavior during adolescence*. New York: McGraw-Hill.
- Hong, S. I. (2004). *Relation among to time management,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for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 Isen, A. M. (2008). Some ways in which positive affect influences decision making and problem solving. In *Handbook of Emotion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Jang, J. N., & Choi, Y. H. (2012). Pathways from family strengths and resilience to internet addiction in male high school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stres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3), 375-388. <http://dx.doi.org/10.5932/JKPHN.2012.26.3.375>
- Jeong, H. S., & Jang, Y. O. (2009).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time management ability, self management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adolescent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7(7), 45-58.
- Jo, H. I. (2011). The effec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nd internet use motives on internet addiction: Self-control as a mediator.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3(4), 269-287.
- June, K. J., Sohn, S. Y., So, A. Y., Yi, G. M., & Park, S. H. (2007). A study of factors that influence internet addiction, smoking, and drinking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37(6), 872-882.
- Kim, M. S. (1995).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maladjustment of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H. J. (2009). *Study of the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 gambling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Kim, H. S., Choi, Y. H., & Yoo, S. J. (2010). The study on the relations among ego-identity, stress, and internet addiction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9(2), 173-185.
- Kim, K. H. (2007). A way to overcome addiction, the modern dunge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2(4), 677-693.
- Kwon, B. S., Baek, Y. M., Kim, Y. H., & Kim, Y. Y. (2009). *Development of gambling prevention program for the public*. Seoul: The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 Lee, H. R., Doh, H. S., Kim, M. J., & Park, B. K. (2009). Pathways from maternal parenting behavior to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Mediating effects of adolescents' self-control and depression/anxiet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2), 1-16.
- Lee, J. A., & Yoo, I. Y. (2012). Factor influencing internet addiction proneness in higher grade students at an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3), 547-560. <http://dx.doi.org/10.5932/JKPHN.2012.26.3.547>
- Menard, S. (2001). *Appli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2nd edition)*. Thousand Oaks, CA: Sage University.
- Molde, H., Pallesen, S., Bartone, P., Hystad, S., & Johnsen, B. H. (2009).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gambling among 16 to 19-year-old adolescents in Norway.

-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0(1), 55-64. <http://dx.doi.org/10.1111/j.1467-9450.2008.00667.x>
- Oh, W. O. (2005). The influence of internet expectation and self-efficacy on internet addic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19(2), 339-348.
- Park, H. S. (2012). The study on predictors of addictive personality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1(4), 263-271.
- Park, H. S., & Jung, S. Y. (2011). Predictors of gambling behavior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3), 219-232.
- Park, H. S., & Jung, S. Y. (2012). Development of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addictive behavior for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8), 3597-3609.
- Park, K. A., Kim, H. S., Lee, H. J., & Kim, O. H. (2009). The effect of family and personal variable of internet addicted young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1), 41-51.
- Rankin, B. H., & Quane, J. M. (2002). Social context and urban adolescent outcomes: The interrelated effects for neighborhoods, family, and peers on African-American youth. *Social Problems*, 49(1), 79-100. <http://dx.doi.org/10.1525/sp.2002.49.1.79>
- Sharon, A. G. (2006). Why addiction has a chronic, relapsing course. The neurobiology of addiction: Implications for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Occupational Therapy in Mental Health*, 22(2), 1-29. http://dx.doi.org/10.1300/J004v22n02_01
- Trueman, M., & Hartley, J. (1996). A comparison between the time-management skill and academic performance of mature and traditional-entry university students. *Higher Education*, 32(2), 199-215. <http://dx.doi.org/10.1007/BF00138396>

Predictors of Addictive Behavior in Adolescents*

Park, Hyun Sook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Korea)

Jung, Sun Young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ersonal, family, and community factors that affect addictive behavior of adolescents.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a descriptive survey design. Subjects included 398 adolescents in three middle schools and four high schools located in three cities. Data were obtained from these subjects between July 11 and July 19, 2013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Analysis of the data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19.0 program. **Results:** Of the participants, 62.0% were included in the non-addictive group, and 38.0% in the risk for addictive behavior group. Significant factors related to addictive behavior includes eight personal factors: alcohol consumption, sexual experience, suicidal ideation, experience of being a runaway, time spent using the smartphone, and time management skills; five family factors: physical abuse by parents, parental alcohol abuse, parental rearing attitudes [the type of rearing attitude among emotional warmth, rejection, and overprotection]; and two community factors: number of peers who practice risk behavior and relationship with peers. **Conclusion:** Based on the outcome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a school health program to decrease adolescent addictive behavior should consider personal, family, and community factors.

Key words : Adolescent, Behavior, Addictive

* This study was a part of the work which support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1-0014636).